

〈조씨삼대록〉 음모(陰謀) 화소에 나타난 서술적 특징

송혜란*

〈차 례〉

1. 들어가며
2. 〈조씨삼대록〉 음모 화소에 나타난 인물 변호적 서술의 특징
3. 삶의 예측불가능성과 선택의 불완전성을 전제하는 주역적 사고와의 관련성
4.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조씨삼대록〉 음모 화소에 나타난 인물 변호적 서술 양상을 서사의 우연성을 극복하는 장치로 보고 그것이 삶의 예측불가능성과 선택의 불완전성을 전제하는 주역적 사고와 연관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를 통해 〈조씨삼대록〉의 우연적 서사 전개를 필연적 인과관계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실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인물의 내면 심리에 집중하게 하는 장치의 하나로 보려고 했다.

변호적 서술은 ‘기미를 파악하는 능력’이나 ‘기미를 파악하는 행동’, ‘인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판단에 따른 행위’라는 세 단위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어떤 부분이 더 강하게 나타나거나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변호적 서술은 인물의 판단이 불러온 부정적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기미를 파악하는 인물의 지감(知鑑)이나 인물이 통제하기 곤란한 우연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을 부각시킨다. 이를 통해 인간의 판단과 결정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옹호하는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목소리를 드러낸다.

주제어 〈조씨삼대록〉, 인물 변호적 서술, 주역적 사고, 우연성, 음모(陰謀) 화소

* 서강대학교 박사수료

1. 들어가며

본고는 <조씨삼대록> 음모(陰謀) 화소에 나타난 인물 변호적 서술 양상을 서사의 우연성을 극복하는 장치로 보고, 그것이 삶의 예측불가능성과 선택의 불완전성을 전제하는 주역적 사고와 연관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를 통해 <조씨삼대록>의 우연적 서사 전개를 필연적 인과관계를 결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실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인물의 내면 심리에 집중하게 하는 장치의 하나로 보고자 했다.

<조씨삼대록>에 관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지만 본고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조씨삼대록>을 가문의식을 중심으로 껴려는 것이다.¹⁾ 이러한 경향은 주로 <조씨삼대록>을 가문의 유지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주제의식이 작품 속에서 사건과 인물을 통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가에 집중한다. 반면 <조씨삼대록>에서 가문의식의 이면에 주목한 연구들²⁾은 <조씨삼대록>이 가문의식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저항하거나 비껴가는 담론도 함께 적재하고 있음을 제기한다. 주 문제의식이 ‘중층적 의식’, ‘다성적 목소리’, ‘현실논리에 입각한 서술 시각’ 등으로 요약되는 그러한 연구들은 가문의 이상적 상태보다는 그 외에서 드러나는 문제

1)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소설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조용호, 「삼대록 소설 연구 : 「유씨삼대록」, 「임씨삼대록」, 「조씨삼대록」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장시광,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 152집, 국어국문학회, 2009, 365~410쪽 등.

2) 김문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양상과 기능」, 『한국고전연구』 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127~159쪽, 「〈조씨삼대록〉의 서술전략과 의미」, 『고소설연구』 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149~177쪽; 허순우, 「국문장편 고전소설 <조씨삼대록> 속 노년의 모습과 그 함의-노년의 ‘신체’와 ‘감정’에 주목한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33~162쪽 등.

양상들에 주목하고 그것을 가문의식의 부작용이나 당대 삶의 현실적 모습에 포착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두 연구 시각은 가문소설로서의 <조씨삼대록>이 어느 한 가지 축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다단한 여러 입장을 안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조씨삼대록> 음모 화소에 나타난 변호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와 현실의 단면을 살피려는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³⁾

한편, 음모(陰謀)란 상대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시도되는 모든 행위로, 음모 화소는 이러한 음모를 활용해 서사에서 인물 간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화소를 통칭한다.⁴⁾ 음모 화소가 특히 가문소설과 가정소설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만큼 <조씨삼대록>에서도 다양한 모티프를 동원한 여러 음모 화소가 등장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특히 음모에 빠지는 인물에 대한 변호적 서술이 질게 드러나는 특정 장면에 집중해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⁵⁾

3) <조씨삼대록>에 관한 두 연구 경향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대조되는 측면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의 경우 주로 서사의 전개와 같은 텍스트의 ‘시간성’에 주목한다면 후자는 이야기의 흐름보다는 서술과 같은 텍스트의 ‘공간성(스토리 시간의 정지·휴지)’에 주목하는 특징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텍스트의 담화에 관한 연구가 사건의 연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지점들을 포착하는 데 유용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가 음모 화소에 나타난 변호적 ‘서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담화 연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

4) 음모 화소에 관한 독자적 논의에는 김현룡, 「고소설의 부정누명(不貞陋名)소재고」, 『건국어문학』 15·16합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91, 25~39쪽; 박경열, 「<정을선전>에 나타난 음모와 선인의 부정에 대한 소망」, 『겨레어문학』 26권, 겨레어문학회, 2001, 95~116쪽; 이지하, 「<현몽쌍룡기>의 음모구조와 소설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47편, 한국고전문학회, 2015, 311~341쪽; 강나래, 「<구래공정충직절기>의 음모화소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등이 있다. 음모 화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본고는 음모 화소 자체보다는 그 속에 나타난 담화를 살피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존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음모 화소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해보는 데서 그치도록 하겠다.

5) 본고가 <조씨삼대록>의 많은 음모 화소 중에서도 음모에 빠지는 인물의 판단과 행

<조씨삼대록> 음모 화소에 나타난 변호적 서술은 ‘위기 앞에서 기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미를 파악하는 행동,’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우연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요인’, 그리고 ‘판단에 따른 행위’와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변호적 서술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경우에 따라 어떤 측면이 좀 더 강조되기도 하고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 그 양상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띤다. 이때 기미를 파악하는 능력에는 주로 총명함과 같은 인물의 타고난 성향이나 그것을 발휘해 얻게 된 상대의 자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며, 상대의 발화 태도를 기민하게 살피거나 상대의 요구에 불편함을 느끼는 반응 등은 기미를 파악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음모 화소에서는 인물들이 위기의 조짐을 살폈더라도 결국 상대의 음모에 빠지고 만다. 이에 대해 텍스트는 주로 어떠한 자질을 지녔음에도 그에 걸맞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진 서술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적 요인에 따른 결과라는 어감을 풍기는 서술을 제시한다. 이러한 서술은 인물이 왜 그러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대신하면서 인물의 판단을 변호하고 해당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조명하도록 유도한다.

필자는 이러한 패턴을 가진 인물 변호적 서술을 주역적 사고와 연관 지어 보려고 한다. <조씨삼대록>에 관한 기존 논의 중에는 작품의 인물 구성이 주역의 원리를 반영한 것임을 밝히는 몇몇 성과가 제출되어 있다.

위에 대한 변호적 시선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핀다는 점에서 이 논의가 <조씨삼대록> 모든 음모 화소의 서술적 특징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인물에 대한 변호적 서술이 일정한 패턴을 갖추어 서로 다른 음모 화소에서 반복되고 있으므로 <조씨삼대록> 음모 화소의 여러 서술적 특징의 하나로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필자는 음모 화소의 변호적 서술이 <조씨삼대록>에서 유난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판단되지만 그것이 같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속하는 다른 작품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현주의 논의⁶⁾에서는 <조씨삼대록>의 구성과 인물 형상화 방식에 음과 양의 대립과 균형을 지향하는 주역의 대대관계적 사유체계가 구현되었으며 고소설 작품 중 <조씨삼대록>이 다른 작품들보다도 주역적 사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조씨삼대록>이 그 구성에서뿐만 아니라 표현에서도 대대관계적 사유가 짙게 나타난다고 강조하며 <조씨삼대록>이 지닌 주역적 사유의 담화적 의의를 도출해내고 있다. 박대복·강우규의 논의⁷⁾에서는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에 관한 기존 논의들에서 작품의 인물들이 크게 영웅호걸과 정인군자의 성격으로 나뉜다고 한 점을 바탕으로, 그러한 인물 유형이 후손에게도 반복되고 있음을 포착한 후 <현몽쌍룡기> 연작의 전체 서사 전개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가를 살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몽쌍룡기> 연작 남성 인물 유형이 이원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 착안해 그것이 태극의 원리에 따른 순환과 조화를 드러내는 것임을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이상의 논의들은 <조씨삼대록>이 그 구성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담화의 측면에서도 주역적 사유의 흔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 본고는 그러한 논의에 일정 부분 기대어 음모 화소에 나타난 변호적 서술 양상이 삶의 예측불가능성과 선택의 불완전성을 전제하는 주역적 사고의 영향으로부터 비롯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추론을 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조씨삼대록>에서 큰 갈등으로 발전하는 음모 화소를 대상으로 그 앞뒤에 나타나는 서술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 배경적 맥락을 삶의 예측불가능성과 선택의 불완전성을 전제하는 주역적 사

6) 김현주, 「<조씨삼대록>에서의 대대관계적 사유체계」, 『고소설연구』 34집, 한국고소설학회, 161~186쪽.

7) 박대복·강우규, 「<현몽쌍룡기> 연작의 인물유형 연구-남성인물의 유형과 반복양상을 중심으로-」, 『어문학』 113집, 한국어문학회, 2011, 167~191쪽.

고에서 찾아본다. <조씨삼대록> 서사의 전반부와 후반부 갈등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유현과 조운현의 서사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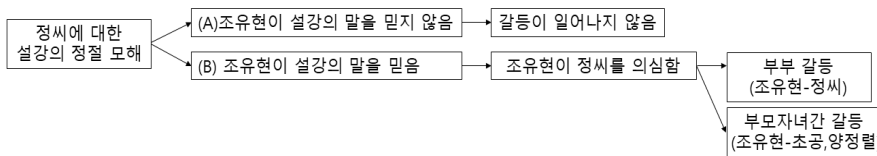
2. <조씨삼대록> 음모 화소에 나타난 인물 변호적 서술의 특징

인물 변호적 서술은 <조씨삼대록>에서 악인이 음모를 실행함으로써 서사 전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점에 등장한다. 서사에서 한 인물의 음모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주요한 사건이 되려면 음모 대상자가 되는 인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쳐야만 한다. 가령, 한 인물의 속이기는 상대의 속기와 대응됨으로써만 속임으로써 발생하는 사건들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조씨삼대록>의 인물 변호적 서술은 그와 같은 상황변화의 기점에서 서술자의 목소리로 나타나는데, 이는 곧 스토리 층위와 담화 층위의 분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황은 <조씨삼대록>에서 갈등의 구조화가 담화 층위의 서술자를 요청할 만한 어떤 힘을 가졌거나 혹은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씨삼대록> 음모 화소에 나타난 불일치 서술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양상이 바탕하고 있는 배경을 추론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

<조씨삼대록> 전반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유현 서사의 갈등은 정씨에 대한 설강의 부정(不貞) 모해로부터 출발한다. 설강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으며, 굶대 없고 식견이 부족한 어머니를 홀로 모시면서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린 나이에 과거 급제해

8) <曹氏三代錄(조씨삼대록)> 필사본 1~40권,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 김문희 외 역주, <조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 2010.

임금의 총애를 얻고 자신이 마음에 둔 정씨와 혼인하기 위해 단 시간 내 벼슬을 상당히 높이는 등의 개인적 노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씨와의 혼인은 성사되지 못했고 정씨가 조유현과 정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설강은 크게 분노한다. 정씨의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권문세가인 조유현과 비교되는 자신의 한미한 가문적 상황에 대한 열등감과 얽히면서 분노가 증폭된 것이다. 개인적 노력으로 얻은 벼슬 역시 조유현에게 별다른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설강이 정씨의 정절을 모함하여 조유현과의 혼사를 방해하려는 데까지 나아가고 설강의 모해는 이후 조유현 서사의 여러 갈등을 일으키는 단초가 된다.



위 표에서처럼 설강의 모해는 그 자체로 갈등을 야기할 수 없다(A). 갈등을 생성하려면 속임의 대상이 되는 조유현이 설강 말을 믿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B). 조유현이 설강의 말을 믿지 않으면 설강의 모해는 서사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 따라서 ‘설강의 모해’는 반드시 그에 대한 ‘조유현의 확신’과 하나의 쌍을 이루으로써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설강의 모해만큼 조유현의 확신 역시 서사를 움직이는 핵심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조유현이 설강의 말을 믿어버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물 자질과 그로부터 기대되는 행위 사이의 개연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서사전개의 개연성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유현은 앞에서 줄곧 외면적·내면적 자질 및 재주가 남보다 뛰어난 인

물로 기술된다. 호랑이 같이 넘치는 기운이 문제시되기는 하지만 다독(多讀)과 문재(文才)로써 그러한 기운을 제어하려고 노력하며 아버지의 글 쓰기를 대신할 정도의 문장력을 갖춘다. 이에 의하면 조유현은 어느 정도 지감(知鑑)을 갖췄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인물이 누군가의 꺾임에 속한다는 것은 인물 정보와는 잘 맞지 않는 전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유현이 설강의 말을 믿게 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위와 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한 서술자 발화가 담화 층위에서 드러난다.

현은 침묵하니 이 말이 불승히연하나 ① 비록 설성을 지기로 대접지 아니나 그릇말을 꿈여 무고한 스템을 희홀 줄은 생각지 못히고 또한 ② 총명하나 나히 어려 세스를 경력지 못히엿고 ③ 텃성이 지극히 대테흔지라 엿지 공교흔 씨를 생각하리오 ④ 제 친흔 가운데 말이 경경흔를 보고 드른 말을 좃지 못히는 줄 알고 그 위인을 비록 맞지 아니나 이 말이야 엿지 맞지 아니리오 하히지심으로 혀여 스식히미 업서 …(중략)… ⑤ 조성이 저의 착급흔를 보고 그 위인의 전도흔과 언스의 경박흔를 가쇼로이 너겨 추슈 봉정을 흘녀 설성을 잠간 보고 우음을 썬여시니 심침흔여 기의를 탁량치 못홀지라 조성이 설성을 보내고 고요히 싱곡히미 아야의 지심친우로 면약히신 친스를 물이칠 길이 업고 잠잠코 취기도 측히미 비위 거스려 좌상우생하다가(1권 84~88면)

위 인용문은 설강의 모해에 대한 조유현의 반응을 기술한 것이다. ①~⑤는 표층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의미 지향성은 매우 흡사하다. 조유현이 뛰어난 지감을 갖췄음에도 설강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반복된다. 조유현은 설강을 인품을 믿지 않고 그의 행동을 기민하게 살피며(①,④,⑤)⁹⁾ 총명함을 타고 났고(②) 도리를 중히 여기는 인물이다(③).

9) 한편 텍스트에서는 설강과 조유현이 서로 격이 다른 인물임을 암시하는 서술을 음모 화소 이전에서부터 제시한다. 그러한 서술은 음모 화소를 이해하기 위한 선결적 조

이런 서술은 조유현이 지감을 발휘해 위기를 피하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설강의 계책을 간파해내지 못했고(①,③,⑤), 정혼자의 부정을 문제 삼는 말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④) 세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②) 결국 설강의 꾀임에 넘어가고 만다. 인물 정보로부터 기대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데 대한 위와 같은 서술은 조유현이 설강의 거짓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언짢아하는 과정에서 반복 등장한다.

조유현이 설강의 꾀임 앞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무결한 아내를 오해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서사는 분명히 조유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위의 서술들은 조유현의 잘못에 집중하려 하지 않는 대신 그가 얼마나 지감을 갖춘 인물이며 위기의 조짐을 파악하려 했는가를 강조한다. 이렇게 조유현의 잘못된 처신을 변호하려는 태도는 부정적 결과의 원인이 조유현의 총명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이후 서술자의 발화에서도 잘 알 수 있다.¹⁰⁾

위와 같은 서술은 조유현 개인의 인간적 반응에 대한 옹호를 드러낸다. 혼인할 아내의 흠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배우자

건이 되는 것으로, 위 변호적 서술에 나타난 조유현의 지감을 강조하고 그가 설강의 꾀임에 쉽게 넘어갈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유현은 총명이 과인홀뿐 아니라 턴성이 석석하고 연량이 하해 갯티니 군즈와 쇼인의 길이 다른지라 비록 룡문의 올느시나 맞춤내 지기틀 여러 대접흐는 일이 업서 첫초로 대접흐는 일이 만흐니 설성이 미양 박경타 꾸짓고 저는 짐쭈트 다희여 친이흐는 거동을 뵈이더라(1권 78~79면)”, “조성이 본대 대테흐 성정시오 저의 위인을 취치 아니흐는 고로 다시 못지 아니니(1권 81면)” 등에서는 두 인물을 직접 비교하거나 설강에 대한 조유현의 부정적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두 인물이 서로 대립적 자질을 지닌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10) 조유현을 문제 삼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시각은 “이 혼갓 설성의 말을 드를 뿐 아니라 부부 낭익이 가리미니 엇지 조성의 지감이 불명호리오(1권 119면)”, “어시 비록 명쾌흐나 심위 번난흐미 업지 아니(3권 62면)”, “년쇼 장뵈 스광의총이나 엇지 증분흐미 업스리오(3권 62면)” 등에서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

가 될 남편에게는 민감한 사항이다. 이는 가문적 차원의 문제이면서도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리 참소자의 뒤편이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인을 앞둔 배우자의 정절을 문제 삼는 말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조유현의 반응은 미숙한 판단이기보다 오히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정씨의 언행을 보면 참 정숙한 사람이라 생각하다가도 설강의 말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이후 조유현의 독백과 발화는 인물의 서툰 대처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내면을 비추는 데 목적을 둔 것처럼 보인다.¹¹⁾

조유현은 설강의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양정렬]에게 가 설강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진 않지만 정씨의 현명함을 어찌 알겠느냐며 속마음을 털어 놓는다. 그러나 양정렬은 정씨는 좋은 사람이며 혼사는 아버지가 주관하시므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조유현을 질책한다. 너 같이 식견이 너그러운 아이가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며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¹²⁾ 초공은 아내인 양정렬이 아들 부부의 소원함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잠시 액운이 끼어 그런 것이므로 몇 년 후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¹³⁾ 그러나 초공의 낙관적 태

11) 저곳튼 위인으로 엇지 그 형시 음비하고 ... 나의 지인호는 안광이 유승타인이라 저의 안식이 염미호 중의 또 복록이 완전니상이오 일쌍 봉미의 화평한 기운이 춘양 갖트니 냥안 정치 효성 갖트여 결단코 비박지시 업슬 거시로대 설강의 말이 그 어인 말이런고 ... 설강의 말 곳 아니면 그 상광은 니르지 말고 녍량과 슬기 니시의 우허라(2권 118~119면), 잠간 그른 말이 이셔 일념의 고이호미 정시의 위인을 본즉 그 말이 허무허더 또 헛되다 홀진대 귀신의 작회호미 아니면 저를 잡으미 만무호니(3권 12면)

12) 내 아허 조유로 식견이 관대호니 엇지 호의호리오 혼스는 갈히매 너게 비홀지라 더욱 더너 대인의 호세는 배니 엇지 쇼루호리오 흥물며 정저의 지감이 붉아 기합호를 일코르미니 너는 의심치 말나 네 비록 불합호나 면약호 혼인의 명일 흥빙호는 씨 엇지호리오(1권 89~90면)

13) 부부의 은인후박은 인력으로 못호나니 ... 원내 식뵈 식광이 이시니 지앙이 이시리니

도가 곧 조유현의 내적갈등에 대한 공감을 의미하진 않는다.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며 아들 부부의 문제를 곧바로 가문의 문제로 치환하고 그것의 해소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조유현이 겪을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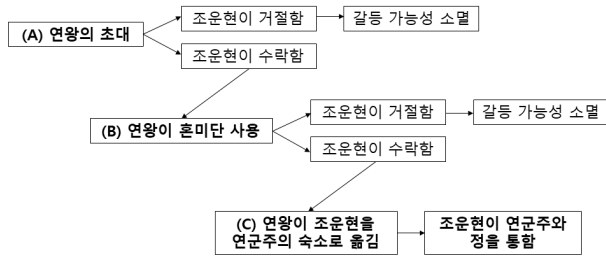
조유현의 판단과 대처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텍스트 곳곳에서 서술자와 다른 인물들의 입장을 통해 여러 갈래로 비춰진다. 그 중에서도 위와 같은 변호적 서술은 나이가 어린 데서 비롯한 세상 경험의 부족함과 혼인할 배우자의 정절 문제라는 사안 자체의 심각성을 고려함으로써 인물의 잘못된 선택을 꾸짖으려 하기 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⁴⁾

이제 저의 부뷔 쇼원키는 낭익이 이시미라 스오 년을 지느면 반드시 지앙이 쇼멸호리니(2권 46면)

- 14) 기존 연구에서는, 문체적 성향을 따면서 핵심 사건들의 중심에 놓여 있는 가문소설 속 몇몇 인물들이 생애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을 겪으며 내면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성장소설적 구도를 보여준다고 논의한 바 있다(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 108집, 한국어문학회, 2010, 53~86쪽). 여기서 조유현과 같은 어린 아이가 악인의 음모에 빠져 아내를 의심하고 박대했다가 시간이 흘러 깨달음을 얻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 역시 그러한 성장소설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조유현의 모습을 성장이나 성숙과 같은 키워드로만 읽고 싶지 않다. 인물을 둘러싸고 나타난 담화를 세세히 살핍으로써 위기의 조짐을 포착하려는 모습이나 자신의 판단에 찻찻함을 느끼고 고민하는 인물의 현존에 더 집중해보고 싶다. 성장과 성숙은 인물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반해 인물의 현존에 주목하면, 인물 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삶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인물의 내면을 보다 세세하게 읽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뒤에서 분석할 조운현 서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많은 성장서사는 실제로 어린 아이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고 성장서사와 성장소설은 미성숙기의 주인공이나 어린 주인공을 그러한 작품의 핵심 요건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내면의 미숙함을 어린 아이가 주로 강하게 지닌 특성으로만 간주하거나, 성장서사의 주인공으로 어린아이가 주로 채택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한 현상 등이 어린 아이에 대한 사회적·이념적 시선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위와 같은 변호적 서술의 양상은 <조씨삼대록> 후반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운현 서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조운현 서사에서 제일 먼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은 연왕부녀다. 연왕은 조운현을 사위로 삼고자 친척지간인 임금에 사혼을 요청한다. 그러나 시기심이 많고 영특한 인물인 연왕을 불편해하는 임금은 사혼 요청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다. 오히려 그 딸의 성정을 문체 삼으며 연왕과 정혼하지 않으려는 조가의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 딸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임금의 권위로도 어찌지 못하는 조가의 권세에 대한 열등감은 연왕의 분노를 부추기게 된다. 한편 연왕의 딸 연군주(천화군주)는 외모는 매우 아름답지만 인자하지 못하며 겉과 속이 다른 인물로 기술된다. 조운현의 아내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미 남씨와 정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친인 연왕과 함께 조운현을 간계에 빠트리고 위력으로 혼인할 계획을 세운다.

연왕부녀는 요약으로 조운현의 심신을 제어하고 강제로 정을 통함으로써 혼인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꾸민다. 설강의 모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왕부녀의 음모 역시 조운현의 처세에 따라 서로 다른 플롯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말로써 속이는 행위와 다르게 요약 투약은 상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방식이므로 계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상황이 연출돼야 한다. 이에 따라 연왕은 직접 조운현을 초대해 진수성찬을 대접하면서 혼미단을 탄 술을 먹일 계획을 세운다. 여기서 연왕의 초대에 응하는 조운현의 행동은 이후 요약 투약 및 연군주와의 동침을 가능하게끔 하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서사에 변화를 주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위 표에서처럼 연왕의 초대에 대한 조운현의 수락은 연왕이 혼미단을 술을 먹이고(B) 약에 취한 조운현을 연군주와 동참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C)하지만, 반대로 조운현이 연왕의 초대에 강경하게 대응했다라면 어떠한 문제 상황도 불거지지 않는다. 이처럼 연왕의 초대는 두 방향의 플롯을 잠재하고 있으므로 서사 변화의 기점이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조운현에 대한 변호적 서술의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일은 연왕이 길히서 운현을 만느니 빅마 금안의 나는다시 달녀오다가 ① 연왕을 만느니 문득 말을 두로혀 국중으로 드러가니 빅마 금안 우히 오스 조피 더욱 비상하고 옥면 영풍이 일평의 조요흔지라 시로이 저의 동상을 삼고져 육심이 유출흔지라 문득 슈례를 머무르고 팔홀 드러 읍하고 청하여 닐오디 과인이 본디 지조를 스랑하는 마음이 남과 다룬지라 현계의 출뉴흔 지화를 불승 탄복하느니 한번 츠즈미 업나노 오늘 고풍히 만느기 영형하거늘 엇지 피하느노 ② 한림[조운현]이 제 혼연이 아른 체하느디 모홀치 못하여 마두를 두로혀 도중의 하마하여 공경 사례 왈 쇼싱은 황구 쇼이라 모침던은호와 한원의 춤슈 호오나 어린 나히 직임의 중하므로 인스를 폐호와 혼번도 귀궁의 배알치 못하오믈 황공하옵더니 금일 명피 여츠하옵시니 감격 중 황피하여이다 연왕 왈 신진 명시 황친을 괴로워 하거니와 너무 경만치 못하리니 내 궁이 예셔 슈리는 하니 말머리를 두로혀 내 문정을 비호고 서로 왕리하기를 괴로워 말나 ③ 한림이 가장 괴오로나 년쇼하여 세정을 경너지 아났고 ④ 저의 청이 간절하니

면박함도 어렵고 혼연 사왓 ⑤ 맞닿이 명을 밧드러 후거의 뵈셔 귀궁의 감죽
 호오더 일식이 느껴 친견의 뵈웁기 느즌지라 급일을 도리가 타일 귀궁의 현
 알흐리이다 왕이 드른 체 아니호고 즈기 하리로 호여금 조한림의 말을 어거호
 여 호가지로 뵈시라 호고 슴미를 잇그러 말게 오르기롤 간청하니 ⑥ 조성이
 비록 총명 여신흐나 엇지 저 흥심을 알니오 ⑦ 본품이 쇼탈호고 불과 지조를
 스랑호는 줄노 아라 잠간 식칙호고 가고져 호여 왕으로 조츠 연궁의 니르니(9
 권 25~28면)

위 인용문은 조운현을 자신의 집으로 유도하려는 연왕과 그에 대한 조운현의 반응을 보여준다. ①~⑦은 모두 조운현이 연왕을 피하거나 그의 요청을 거절하기 위해 취한 행동과, 그런데도 연왕의 꾀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보여준다. 조운현은 타고나기가 총명해(⑥) 갑자기 자신을 초대하려는 연왕이 미심쩍은 데가 있음을 고려할 만한 자질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왕의 초대를 불편해하거나(③),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⑤)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멀리서 연왕을 발견했을 때 몸을 숨겨 피하려고도 한다(①). 이는 연왕의 부족한 인품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조운현은 결단력을 내리지 못하고 연왕을 따라간다. 어른의 인사를 무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왕을 차마 면박하지 못하고(②,④) 그 흥심을 깨닫지 못했으며(⑥) 그저 자신의 재주를 기특히 여기는 것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⑦). 나이가 어려 세상 경험이 부족(③)한 것도 조운현의 어물거리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연왕의 초대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조운현의 행동은 이후 불순한 성품을 가진 연군주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런 연군주가 입가 후 가문 내 갖은 분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변호적 서술들을 꼼꼼이 보면 조운현

은 연왕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혼연한 태도를 면박하지 못하고, 간절히 청하는 까닭에 거절하기 곤란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적 체취를 풍긴다.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판단을 이해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위 서술이 조운현을 변호하는 시각을 강하게 담고 있다는 사실은 위와 매우 흡사한 표현이 부친에 용서를 구하는 조운현의 자기발화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연왕의 환대와 간절한 청에 마지못해 수락했음을 강조하고 자신은 간계한 꾀에 억울하게 빠진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다.¹⁵⁾

그런데 조운현의 경우 주로 그의 지감이나 음모를 실행하는 주체와의 태생적 차이 등을 크게 강조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변호적 태도를 견지했다면, 조운현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대신 인물의 판단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강해지는데 대체로 정에 이끌려 마지못해 연왕의 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서술이 반복된다. 변호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애초에 두 인물을 다르게 형상화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운현은 설강의 음모에 빠지기 전까지는 외면·내면적 자질과 문제 모두 뛰어난 인물로 기술되었다. 하지만 조운현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적 자질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운이 센 것뿐만 아니라 방탕하여 여색까지 갖춰 아버지 진왕 몰래 술과 기생을 가까이 한다. 진왕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 학문에 정진할 것을 요구하나 별 효과를 보지

15) 작일 도중의셔 연왕을 만노오니 피하여 말을 도로혀미 왕이 간절이 청호미 연궁으로 가즈 호오니 희이 년쇼호여 세스틀 아지 못호 고로 제 또 왕궁 귀인시오 테실 지친이라 설만치 못호고 어린 마음의 미호 아히로 은근히 청호는디 거절호고 도라오미 레 아니라 호와 조춘 가온족 슈언을 겨유 호여셔 연왕이 슈찬을 성비호와 친이 잔을 드러 간절히 권호거늘 마지못호와 슈비를 마섯더니(9권 52~53면)

못한다. 이는 조유현이 넘치는 기운을 다독과 문재로써 제어했던 것과는 판연히 다르다. 그래서 진왕은 조운현의 그런 성향을 제어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여성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한다. 게다가 조운현이 풍류와 호색을 일삼는 사람임을 이미 알고서 연왕부녀가 음모를 세웠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유현과 다르게 조운현은 그전부터 공공연하게 문제적 자질을 지닌 인물로 그려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두 인물에 대한 변호의 질적 차이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한다. 조유현에서는 그의 총명함, 설강과는 다른 군자적 면모, 도리를 중시하는 성격, 설강을 살피는 기민함이 강조되는 것과는 달리 조운현에서는 총명하다는 언급이 한번 등장할 뿐이다. 또한 조유현의 경우 정혼할 상대의 부정(不貞)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띠는 점, 그것이 누군가의 거짓말이라는 일방적 행위를 통해 개입된다는 점에서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경감 받을 여지가 크다. 하지만 조운현은 이후 연왕이 주는 술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먹거나 자의로 연군주와 정을 나누는 등,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선택지가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신중하지 못한 대응을 보인다. 연왕의 꾀에 속은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데 대한 근심으로 아버지께 죄 받을 것을 속으로 걱정하거나¹⁶⁾ 아버지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잘못을 함께 고백¹⁷⁾하는 장면들은 연왕부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16) 한림이 계속 지비하여 스죄하고 시좌하나 일념의 큰 근심이 있는지라 이런 쇼스의 엄훈이 여초할 제 연왕의 입으로 무상한 말이 눈즉 받드시 큰 죄를 당홀 거시오 또 귀천간 고이 즙고 나오미 업스니 스스로 삼가지 못호물 뉘웃고 허다 근심이 반복호디(9권 44면)

17) ... 쇼즈의 죄는 처음 썰치지 못호고 연궁의 가온 거시 큰 죄오 술을 다쇼간 마시미 잘못호여시니 두 죄오 취후의 기녀를 아른 체 말고 나올 거술 어린 의스를 니여짜가 이곳의 썩지오니 이 세 일이 희으의 죄라 이 밧근 실노 엄문지하의 다시 죄 업습고 꾸민 비 아니오니...(9권 55면)

조운현 스스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조유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전폭적 변호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조운현에서는 변호적 시선과 비판적 시선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삶의 예측불가능성과 선택의 불완전성을 전제하는 주역적 사고와의 관련성

인물의 처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기점에서 담화 층위에 그 존재를 드러낸 서술자는 인물이 본래 갖고 있는 성격이나 의지와는 다른 선택을 할 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서술함으로써 인물의 입장을 옹호하고 감싸주었다. 음모에 빠진 인물의 대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텍스트의 다른 국면들에서와는 달리 해당 인물들의 시각이 잠재된 변호적 서술에서는 오히려 인물의 선택에 개입된 여러 맥락들을 고려함으로써 행위의 피동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서술은 경우에 따라 끼어들어오는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해 상황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의식을 잘 보여준다. 이는 인간의 삶이 예측하기 어려움을 전제하고, 선택의 순간들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주목한 주역(周易)적 사고와 연결된다 할 수 있다.

조유현과 조운현이 타고난 총명함을 발휘하거나 위기의 순간에서 그 조짐을 잘 살폈더라도 결국 음모에 빠지게 것은 대체로 그들의 의지로는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요인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어른의 부탁을 면전에서 거절할 수 없었던 것, 아직 나이가 어려 경험이 부족해 상황에 대한 판단이 미숙했던 것, 곧 정혼할 상대의 부정이라는 사안 자체의 심각성 등은 아직은 미숙한 아이의 처지가 반영된 것이거나 행위의 근

거를 윤리·도덕적 규범이나 인정(人情)의 문제로부터 찾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 맥락의 개입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양상은 인물이 총명함을 갖췄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 나름대로 경계의 자세를 취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맥락에 의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불가항력적 맥락은 대체로 우연성을 띤다.

우연적 조건들로 인해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사고는 <조씨삼대록>이 갈등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우연적 사건을 배치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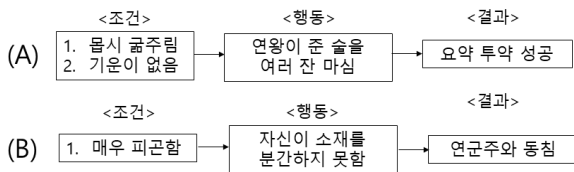
조유현 서사에서 설강의 모해만큼이나 갈등을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남편으로부터 총애를 얻기 위해 요약을 활용하는 강씨이다. 강씨의 요약 투약은 연왕부녀의 경우에서처럼 상대의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계책이므로 무엇보다도 투약을 가능케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강씨는 사혼의 권위를 빌렸다는 입가 과정과 부족한 인품을 이유로 시가와 남편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이 때문에 조유현과도 집안에서 거의 마주칠 일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조유현에 대한 강씨의 요약 투약을 시도조차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강씨에 의한 음모 화소는 강씨의 요약 투약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위의 두 표는 강씨의 요약 투약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동원되는 우연적 조건들의 내용과 우연적 조건의 배치로 인한 사건의 전개를 보여 준다. 자신을 도와 글을 쓰던 조유현에게 초공은 시간이 늦었으니(조건1) 개인 침소에서 쉴 것을 명한다(조건3). 초공의 명에 따라 밖을 나온 조유현은 마침 날도 춥고(조건2) 몸도 피곤해(조건4) 자신의 침소까지 가지 못하고 가까운 곳을 찾는데 그곳이 바로 강씨가 머무는 도화정이다(사건A).

<조씨삼대록>에서 조유현은 강씨가 먼저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데 대해 분노하며 전혀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조유현이 도화정에 갈 일은 거의 없으며 그에게 도화정은 겨우 위와 같은 우연적 조건들이나 갖춰져야만 지나칠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그런데도 선택의 기로 앞에서 조유현의 의지와는 별개로 그날의 날씨와 심신의 상태, 시간적 상황, 부친의 명과 같은 우연적 요소들이 조유현을 도화정으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도화정에 온 조유현은 마침 날이 춥기에 데운 향온주를 요청하고 결국 그 향온주는 강씨의 요약 투약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 조건이 됨으로써 조유현은 의도치 않게 강씨의 수단에 빠지고 만다(사건B).

조유현을 집으로 초대하는 데 성공한 연왕은 본격적으로 음모에 착수하는데, 계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유현의 대응이 필요하다.



조운현은 평소 주량이 좋아 두어 잔 술에 인사를 모르는 인물이 아니지만, 마침 그때 몹시 굶주린 데다(조건1) 기운이 없어(조건2) 독한 약을 푼 술을 연거푸 마시게 되고 연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사건A). 약에 취해 연군주의 숙소로 옮겨진 조운현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 보는 등의식이 전혀 없진 않았으나 매우 피곤하여(조건1) 자신이 어디 와 있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연군주와 동침하게 되면서 책임질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낸다(사건B).

이처럼 두 음모 화소에서 조유현과 조운현에 요약을 투약하기 위해 제시되는 우연적 조건들은 인물이 예상치 못했거나 의도치 않았던 상황에 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역』은 삶의 위기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앞뒤 상황을 잘 살펴 스스로 경계하고 적절할 처세술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주역은 계절의 변화,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 만물의 생사(生死)와 같은 우주만물의 변화와 법칙을 발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¹⁸⁾ 자연의 법칙이 인간 삶의 규범에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주역』은 음(陰)과 양(陽)이라는 상대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두 개념을 활용해 우주의 모든 현상을 풀이하는데¹⁹⁾ 이 음과 양의 상대성은 세상의 이치가 어떤 일방향적 움직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서로 감응하면서 작동된다는 의식을 담고 있다. 또한 ‘역(易)’에는 변화를 통한 변혁과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만고불역(萬古不易)의 개념이 모두 포함된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도덕적 규범 등이 만고불역에 해당한다.²⁰⁾ 이처럼 주역은 수시로 변화하는 자연의 이치

18) 『상경(上經)』, 『대산주역강의』, 한길사, 2011, 27쪽.

19) 위의 책, 62~90쪽.

20) 위의 책, 33~37쪽.

를 연구하고 그것을 삶의 규범이나 제도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특히 주역의 「계사전」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짐작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나에게 이로움을 주고 해가 되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그러한 판단에 따르는 강단 있는 실천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처세의 강조는 삶이라는 것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인간의 선택과 판단은 완벽할 수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계사상전」 제1장의 ‘方以類聚物以群分吉凶生矣(방소로써 종류를 모으고 물건으로써 무리를 나누니 길과 흉이 생긴다)’²¹⁾는 인간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한 판단과 옳고 그름은 구체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상대성과 관계론적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구절에 따르면 위·아래(上下), 사방(四方)에는 하늘, 땅, 산, 내, 들 등의 여러 방소가 있으며 그 방소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부류와 물류와 모여 살아간다. 방소마다 인간, 짐승, 어패류, 초목 등이 유유상종으로 어울리며 그 종류에 따라 모여 있다. 그리고 이 물류들은 또 다시 작은 무리로 나뉘는데 이 때문에 길흉이 생긴다고 한다.²²⁾ 즉, 혼자 있으면 길흉이 없지만 상대가 있기에 길흉이 있다는 것이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다면 길하고 흉할 이유가 없지만 이 세상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한번 움직이면 또 사라지는 것처럼 무엇이든 상대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거기서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생겨난다고 본다. 인간 세상이 상대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역의 사고는 인간을 주변세계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로 보고 세상에 대한 판단의 기준 역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²³⁾ 그래서 『주역』에서는 ‘기미(幾微)’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21) 「계사상전(繫辭上傳)」, 『대산주역강의』, 한길사, 2011, 17쪽.

22) 위의 책, 19~20쪽.

『주역』에서 ‘기미’란 동함의 미미함으로(幾者動之微吉之先見者也)²⁴⁾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조짐을 뜻하며 기미 앞에서 어떠한 판단과 행동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로 주어지는 기미는 은미하게 작용하는 만큼 길과 흉이 잠재된 기로가 된다. <조씨삼대록>에서 설강과 연왕 같은 이들이 계락을 실행하려는 기점은 『주역』에서 말하는 기미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기점에서 설강의 언사를 주의 깊게 살피는 조유현의 행동이나 연왕을 발견하고 미리 피하는 조운현의 행동 등도 기미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인물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유들로 인해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여러 맥락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는 실제적 맥락에서 기미를 파악해 그에 따라 결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것처럼 기미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미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간파해내고 옳은 결정을 내리려면 세상에 대한 많은 경험과 연륜, 그리고 고도의 수양이 필요하다. 또 그런 능력들을 갖추었다 해도 기미를 정확하게 간파해내는 것은 결국 확률의 문제이므로 언제나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

음모 화소에서 불가항력적 요인과 우연적 조건의 배치는 우연적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이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길하거나 흉할 수도 있음을,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그러한 서술적 특징들

23) 정환희, 「도덕교육에 대한 주역적 성찰-콜버그 중심의 인지발달론과의 대조」, 『동양고전연구』 75, 동양고전학회, 2019, 500쪽.

24) 「계사하전(繫辭上傳)」, 『대산주역강의』, 한길사, 2011, 235~237쪽.

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포착해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 설강의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하고 정씨의 정절을 의심해 갈등을 피하지 못한 조유현 부부에 대해 초공을 비롯한 조가의 가문원들은 둘 사이에 액이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부부의 됃됨이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언급하는 것²⁶⁾은 언젠가는 액이 다한다는 낙관적 의식이 전제된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액’이라는 말로 대체되는 예측불가능한 삶의 특징이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진왕은 조유현에게 연왕을 뿌리치지 않은 점과 연궁에 갔더라도 빨리 나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 등을 조목조목 따진다.²⁷⁾ 끝까지

25) 우연성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강진구는 한국근대초기소설론 연구에서 근대초기 비평가들의 ‘우연성’에 대한 가치절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 당대 시대적 맥락에서 배태된 하나의 담론이라고 주장했다. 우연성에 대한 비판은 기존 고전소설의 독자들을 근대초기 새로운 소설로 진입시키려는 한 움직임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사적 장치로서 우연성의 구체적 성격과 기능은 텍스트 속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김동리와 조연현의 말을 인용했는데, 김동리는 우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실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조연현은 우연이고 항상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각각 김동리, 『우연성 연구』, 《신사조》, 2950.5월호, 조연현, 『소설과 우연』, 『조연현전집』 4권, 어문각, 1977, 모두 강진구, 『한국근대초기소설론연구-우연성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11쪽에서 재인용. 이와 유사하게 이종필(『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전소설의 ‘우연성과 초현실성’-〈최척전〉의 교사용 지도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4,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8)은 <최척전> 연구에서 고전소설의 우연성은 작품 구성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전소설 창작·향유자들의 세계관에서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조씨삼대록>에 나타난 우연성이 주역(周易)적 사고와 연관이 있으리라 본다.

26) 부부의 은인후박은 인력으로 못하니 … 원내 식부 식광이 이시니 지앙이 이시리니 이제 저의 부부 소원키는 낭익이 이시미라 … 제 위인이 종시 제가 못하도록은 아닐 거시로대 익이 가리온대 성이 과격하니 슈삼 년 내의 과계 이실가 흐느이다(2권 46~47면), 저의 낭익이 진흐면 즈연 화락홀 씨 이실가 바라는 배로쇼이다(3권 7~8면) 너의 침묵흐미 속속의 일스로 방불하니 이는 정아의 유익흐미라(3권 14면), 아직 저의 나히 어리고 식부의 아름다움과 복녹이 완전지상이 반호 넘녀 업스오니 쇼쇼 지익을 파려홀 배 아니라 마상이 계획흐엄죽흐디 … 원내 아뵈 용식이 슈발흐여 슈삼 년 지앙은 먼치 못흐리이다(3권 29~30면) 등.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했음을 꾸짖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연왕의 교묘한 간계에 빠진 것에 분노하며 비난의 시선을 연왕에게로 옮기기도 한다.²⁸⁾ 아들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불만과 교묘한 상황을 꾸며낸 연왕에 대한 분노를 함께 터트리는 것은 아들을 감싸고 싶은 아버지의 목소리면서도 교묘한 흉인의 계략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탄식하는 데서 나온 것일 수 있다.

또한 상대의 음모에 빠질 수 있는 동일한 상황에서 조유현과 같이 타고난 지감을 갖춘 인물과 조운현처럼 그렇지 못한 인물이 모두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삶의 예측불가능성과 인간의 판단의 불완전함을 더욱 또렷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음모 화소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상의 서술 양상들은 인물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여러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한 인물들에게 비난의 시선만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복잡한 내면 심리에 주목하게 하거나 인간적 체취를 드러내고 있다. 상황에 따라 끼어드는 우연적 맥락이 인물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자신의 의지나 생각과는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실제 삶의 현실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27) 왕이 노즐 왈 장뷔 군부 밧기 뉘 두리오리오 네 아니 가면 아모 연왕인들 위력으로 다려가리오 공연이 연궁의 가기도 고이호고 게 가 즈기도 이상호니 밤을 한가지로 지너미 혹 의합호 친우로 상화호른 가하거니와 연왕이 일가 어른도 아니오 너의 봉비도 아니라 마지못호여 가신즉 예스 한훤뿐이라 무슨 연고로 부형 잇는 사름이 임의로 나가 밤을 즈며 어질증인들 네 안식이 춘화 곳고 거동이 송뵝 곳트니 무슴 병이 불의의 그리 대관호리오(9권 41~42면)

28) 왕의 명감이 엇지 즈식의 성품과 시로이 형신을 싱각지 못호리오 쇼탈호고 잔 넘너 업스 〽히 연왕의 궤계에 빠진 줄 썩다르니 분노호를 니기지 못호여(9권 56면)왕이 아즈의 격복호를 보미 알고 저즌 일이 아니로디 연왕의 흥계의 속음과 귀천을 분간치 못호고 친근호여 방일호를 통호하여 두로 어즈러이 민다르시믈 크게 노하호여(9권 59면)

4. 나가며

본고는 <조씨삼대록> 음모(陰謀) 화소에 나타난 인물 변호적 서술 양상을 서사의 우연성을 극복하는 장치로 보고, 그것이 삶의 예측불가능성과 선택의 불완전성을 전제하는 주역적 사고와 연관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를 통해 <조씨삼대록>의 우연적 서사 전개를 필연적 인과관계를 결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실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인물의 내면 심리에 집중하게 하는 장치의 하나로 보고자 했다.

본고는 인물의 선택이 불러온 부정적 결과에 주목하기 보다는 선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물의 사고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플롯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의 입장을 살펴보고 싶었다. 그러나 조유현과 조운현에 나타나는 변호적 서술의 차이를 통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의미나 다른 가문소설과의 차별점을 깊숙이 다루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필자가 느끼기에는 다른 삼대록 가문소설에서보다 <조씨삼대록>에서 변호적 서술의 특징적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 논의에서는 다른 작품들과의 차이에 대한 문제들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문소설에 관한 초기 연구들에서 주로 가문소설의 '가문의식'을 강조했던 것과 다르게 최근에는 가문소설에 나타난 여러 현실적 목소리와 중층적 의식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다. 본 논의는 그러한 연구들의 토대 위에서 <조씨삼대록>을 포함한 여러 가문소설의 다기한 목소리들을 포착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曹氏三代錄(조씨삼대록)> 필사본 1~40권,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
김문희 외 역주, <조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 2010.
「상경(上經)」, 『대산주역강의』, 한길사, 2011, 1~679쪽.
「계사전」, 『대산주역강의』, 한길사, 2011, 1~558쪽.
- 김동리, 『우연성 연구』, 《신사조》, 1950.5월호; 조연현, 「소설과 우연」, 『조연현전집』 4권, 강진구, 「한국근대초기소설론연구-우연성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에서 재인용.
조연현, 『우연성 연구』, 《신사조》, 1950.5월호; 조연현, 「소설과 우연」, 『조연현전집』 4권, 어문각, 1977, 강진구, 「한국근대초기소설론연구-우연성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에서 재인용.
- 강나래, 「<구래공정충질절기>의 음모화소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김문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양상과 기능」, 『한국고전연구』 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127~159쪽.
_____, 「<조씨삼대록>의 서술전략과 의미」, 『고소설연구』 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149~177쪽.
김현룡, 「고소설의 부정누명(不貞陋名)소재고」, 『건국어문학』 15·16합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91, 25~39쪽.
김현주, 「<조씨삼대록>에서의 대대관계적 사유체계」, 『고소설연구』 34집, 한국고소설학회, 161~186쪽.
박경열, 「<정을선전>에 나타난 음모와 선인의 부정에 대한 소망」, 『겨레어문학』 26권, 겨레어문학회, 2001, 95~116쪽.
박대복·강우규, 「<현몽쌍룡기> 연작의 인물유형 연구-남성인물의 유형과 반복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학』 113집, 한국어문학회, 2011, 167~191쪽.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2010, 53~86쪽.
이상임, 「판단의 한 과정’의 측면에서 본 주역의 ‘기미」, 『동양철학』 60, 한국동양철학회, 2008, 413~433쪽.

- 이종필,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전소설의 ‘우연성과 초현실성’-<최척전>의 교사용 지도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4집,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8, 385~406쪽.
- 이지하, 「<현몽쌍룡기>의 음모구조와 소설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4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5, 311~341쪽.
-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소설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210쪽.
- 장시광,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 152집, 국어국문학회, 2009, 365~410쪽.
- 조용호, 「삼대록 소설 연구 : 「유씨삼대록」, 「임씨삼대록」, 「조씨삼대록」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230쪽.
- 정환희, 「도덕교육에 대한 주역적 성찰-콜버그 중심의 인지발달론과의 대조」, 『동양고전연구』 75집, 동양고전학회, 2019, 483~506쪽.
- 허순우, 「국문장편 고전소설 <조씨삼대록> 속 노년의 모습과 그 함의-노년의 ‘신체’와 ‘감정’에 주목한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33~162쪽.

ABSTRACT

Descriptive features of Conspiracy in
 <Three Generations Story of Cho-Family[曹氏三代錄]>

Song, Hye-ran

This study saw the character defense narration shown on the conspiracy in <Three Generations Story of Cho-Family[曹氏三代錄]> as a device that overcomes the accidentality of the narrative and thought it might be related to the <The Book of Changes[周易]> that presupposes the unpredictability of life and the imperfection of choice. In doing so, I wanted to see the accidental narrative of the <Three Generations Story of Cho-Family> as a device that does not necessarily lack of causality, but rather shows realistic aspects of real life and focuses on the inner psychology of the character.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 defense narration consists of three elements: "the ability to knowing the springs[*ji*, 幾微]" or "the act of grasping the springs", "the factor influencing a character's judgment" and "the act of judgement". And in some cases, some parts appear stronger or weaker.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character's judgment, the defense narrative highlights the perception[知鑑] of the character or the accidental and compelling factors that the character cannot control. This reveals personal and realistic voice advocating the fact that human choices and decisions cannot be perfect.

Key Words <Three Generations Story of Cho-Family[曹氏三代錄]>, character defense narration, <The Book of Changes[周易]>, accidentality, conspiracy

논문투고일 : 2019.10.15 심사완료일 : 2019.11.10 게재확정일 : 2019.11.25
--